

## 간행사

충남대학교가 정식으로 출발한 것은 독립대학으로 인가받은 1952년 5월 25일의 일이다. 충남대학교가 출발하기 전에 대전을 포함한 충남지역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1951년에 시작된 전시연합대학이 대전에서도 강의를 진행하였지만, 그것은 독립된 대학 시스템을 갖춘 지역대학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오늘날 충남대학교의 기원은 여러 대학이 임시로 만든 전시연합대학보다는 충남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공식적으로 설립한 충남도립대학이다.

1952년 충남대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은 여러모로 시련도 많았지만, 매우 감동적이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행정 지원과 캠퍼스 부지를 위한 국유 재산을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캠퍼스 부지가 마련되었다고 대학이 곧바로 설립되는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인 시설 외에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했다. 이 어려운 시절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지역민들의 아낌 없는 관심과 협조였다. 도민들은 십시일반으로 충남대학교를 위해 자금을 마련해 주었다.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콩 한 말 쌀 한 되라도 충남대학교 설립을 위해 기부하려고 노력했다.

일두일미(一豆一米) 정신은 충남대학교 설립의 핵심 가치이자 원동력이었다. 6·25전쟁 시기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민이 하나가 되어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충남대학교를 설립했다. 이후 충남대학교는 70년을 지나오는 동안 위대한 발자국을 디디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동캠퍼스에서 대덕캠퍼스로 이전을 하면서 캠퍼스를 획기적으로 확장했으며, 최근에는 세종 캠퍼스를 마련하여 외형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 질적인 차원에서도 명실공히 충청 지역의 거점국립대학이자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해 왔다.

충남대학교 개교 70주년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는 말도 있거니와, 우리나라에서 근대 이후에 설립된 대학 가운데 7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대학이 많지 않은 편이다. 충남대학교는 역사의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서울대학교나 주요 사립대학과 함께 앞서 있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대학교 70년사』는 곧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편찬 위원들은 이러한 중차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간행 작업을 진행했다.

『충남대학교 70년사』 편찬 작업은 2022년 1월 ‘충남대학교 7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준비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인 ‘충남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를 편찬 위원 10인, 편수 위원 1인, 편수 보조위원 3인, 행정지원 위원 3인으로 구성하였다. 편찬위원회는 2021년 1월 1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수시로 모여 편찬 방향을 숙의하였다. 1952년부터 2012년까지의 역사는 『충남대학교 60년사』와 『충남대학교 50년사』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수정 보완을 하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역사는 앞 시기의 체계에 맞추어 새로 작성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10년사에 방점을 두고 그 편찬하기로 했다. 기술 방식은 기본적으로 편년체(編年體)를 취하기로 했다.

편찬 방식은 분야별로 책임 편찬을 하고, 그 내용을 위원들 모두 검토하여 확정했다. ‘제1편 충남대학교 70년, 그 위대한 역사’의 총괄 편찬과 ‘제2편 단과대학·대학원·부속기관의 역사는’ 위원장인 이형권 교수가 맡고, 서두 부분과 사진으로 보는 70년사



(해설)는 부위원장인 김세정 교수가 맡았다. 그리고 제1편의 교무·학사는 허정민 교수, 학생·복지는 김정숙 교수, 연구·산학은 윤휘열 교수, 환경·시설은 유재형 교수, 행정·재무는 박완신 교수, 부속기관은 정사무엘 교수, 부록·연표는 고명수 교수, 영문 요약은 주진국 교수가 각각 책임 편찬을 담당했다. 또한, 행정 지원은 대외협력팀 조성범 팀장, 이영민 계장, 이현주 팀원이, 학교 현황 및 학교사 관련 데이터는 정보분석센터 팀장 이봉연 편수 위원이, 편수 보조와 문장 교정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대학원생인 류상범, 차진명, 정소미 등이 수고해 주었다.

‘제2편 단과대학·대학원·부속기관의 역사’는 50년사나 60년사에 없던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제1편이 학교사 전체를 다루는 총론에 해당한다면, 제2편은 부분을 다루는 각론의 성격을 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학교사 전체가 총론과 각론의 조화 속에서 충실히 기술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3편 자치기구와 총동문회의 역사’도 이전의 학교사에 비해 새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심부에서 벗어난 일종의 주변부 역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충남대학교의 엄연한 역사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사실 충남대학교 70년의 역사에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 책보다 훨씬 많은 유의미한 역사의 무늬가 존재한다. 그 모든 것을 기술하지 못하는 것은 역사 기술의 당연한 한계이지만, 아쉬운 일이다.

흔한 말이지만, 역사학자 카(E. H. Carr)는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이 책이 단지 충남대학교 70년의 과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충남대학교의 현재를 성찰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역사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모든 사람의 바람이 아닐까 한다. 충남대학교 모든 가족과 함께 충남대학교, 그 위대한 발걸음이 더 찬란한 100년, 2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진숙 총장님, 김기수 부총장님, 임현섭 기획처장님, 그리고 이찬용 기념사업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년 7월

『충남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장 이형권